KCMI

고령화와 자본시장:
퇴직자산의 축적과 인출

2012. 01. 26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목 차

1 장수화와 퇴직소득

2 연금과 퇴직소득

3 퇴직소득 안정화를 위한 제안

1. 장수화와 퇴직소득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장수화

- **기대수명의 꾸준한 증가**
  - 2010년도 기대수명은 약 80세

- **1997년부터 2009년까지 5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20.7세에서 25.1세로 4.4년 증가하였음**
  - 2009년 기준 55세(50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30.6(35.3)로 남성에 비해 5.5년 장수함

- **201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836명으로 2005년 961명에 비해 875명(91.1%) 증가**
  - 성별로는 남자 256명, 여자 1,580으로 2005년에 비해 남자는 146.2%, 여자는 84.4% 증가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노후 부양 등 자녀에게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기대 감소**

- 부모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거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추세의 증가로 자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감이 감소
-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증가함

❖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47.4%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가족(36.0%)**

-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2002년 70.7%에서 2010년 36.0%로 감소하여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

	부모 스스로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2002	9.6	70.7	18.2	1.3	0.2
2008	11.9	40.7	43.6	3.8	0.0
2010	12.7	36.0	47.4	3.9	0.0

자료: 통계청, 2010년 사회조사결과 (2010)

가구주 연령별 자산보유 및 저축 현황

(단위 : 만원, %)

항 목	전 체	29세 이하	30세 ~ 39세	40세~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총자산	***27,268***	***7,556***	***19,333***	***28,233***	***35,796***	***28,381***
금융자산	5,828 (21.4)	4,209 (55.7)	6,380 (33.0)	7,275 (25.8)	6,695 (18.7)	3,806 (13.0)
부동산	20,661 (75.8)	2,809 (37.2)	12,100 (62.6)	19,961 (70.7)	28,131 (78.6)	25,138 (85.6)
기타자산	779 (2.9)	537 (7.1)	854 (4.4)	997 (3.5)	969 (2.7)	437 (1.5)
부채총액	***4,263***	***935***	***3,815***	***5,339***	***5,865***	***3,056***
순자산	***23,005***	***6,621***	***15,519***	***22,894***	***29,930***	***26,325***

주 : ( ) 안은 총자산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 **전체 가구의 22.7%가 현재 저축을 하지 않고 있으며, 49.6%가 소득대비 저축이 부족하다고 응답 (삼성경제연구소(2011))**
  - 저축 부족으로 향후 노후 생활의 자금 부족 (43.3%) 을 가장 염려하고 있으며, 병원비 등 긴급자금 부족 (15.3%), 자녀 교육비 부족(9.5%) 등을 걱정하고 있음

2. 연금과 퇴직소득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연금의 기능

- **연금: 퇴직 후 평생 지급되는 현금의 흐름**
  - 경제활동기에 퇴직자산 축적, 퇴직 후 소득화
  - 이미 퇴직 시점에 가까운 경우에는 현재 자산을 소득화

- **연금의 기타 기능**
  - 보험: 특히 장수위험(longevity risk)에 대한 헷지
  - 공적연금은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 및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

- "A pension is a stream of payments that starts when someone retires and continues in payment until they die."
  "This is also a definition of a life annuity, so a pension is an example of a life annuity." (Blake, 2006, *Pension Economics*, p.1)

퇴직연금의 중요성

❖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소득대체율을 높임**

–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DB형, DC형 모두 일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분할수급을 유도하여 퇴직자산의 퇴직소득으로 연계를 높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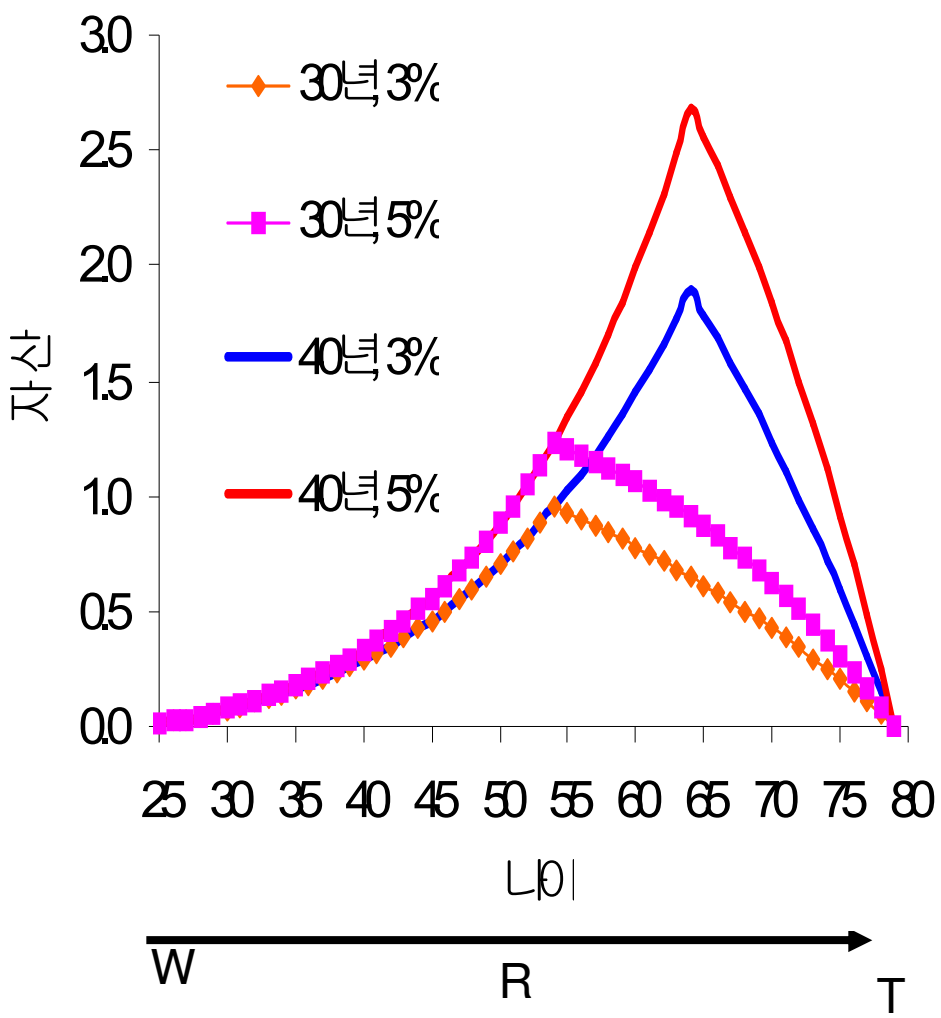
❖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어 노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음**

– 노령화에 따른 투자수익률의 저하 등의 영향은 피할 수 없음

❖ **국민연금 기금의 감소시기에 퇴직연금의 확대가 예상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매각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함**

– 현재의 자산운용 방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

퇴직 자산의 축적과 인출



O 근로기간 (투자기간)

→ 조기입직, 실업방지, 정년 연장

→ 중간정산 방지

O 투자수익률

O 연금화

O 적용확대: 퇴직연금으로 전환

O 추가납입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퇴직연금 유형

- **전통적 DB: "근속연수 x 최종급여 x 사전 약정된 급여 비율(예, 1%)" 을 연금으로 지급함**
  - 장수위험, 재직중/퇴직후 투자위험은 기업주 부담

- **DB형: 근속연수 x 최종 월급여 ↑**

- **DC형: 매년 월 급여 이상을 적립하여 퇴직시 적립된 금액**

- **DB형 DC형 모두 일시금을 확정 지급**
  - 퇴직후 장수위험, 투자위험 개인 부담
  - 재직 기간의 투자위험은 DB형은 사업주 부담, DC형은 개인 부담

- **연금화**
  - 퇴직자가 원하면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전통적 DB형의 연금은 사업주와의 계약인 반면, DB형 퇴직연금의 연금은 금융기관과의 계약

퇴직연금 현황(2011년 11월말)

- **전체 근로자의 33.1%인 총 302만 명이 가입**
  -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DB형 208만 명(68.8%), DC형 94만 명(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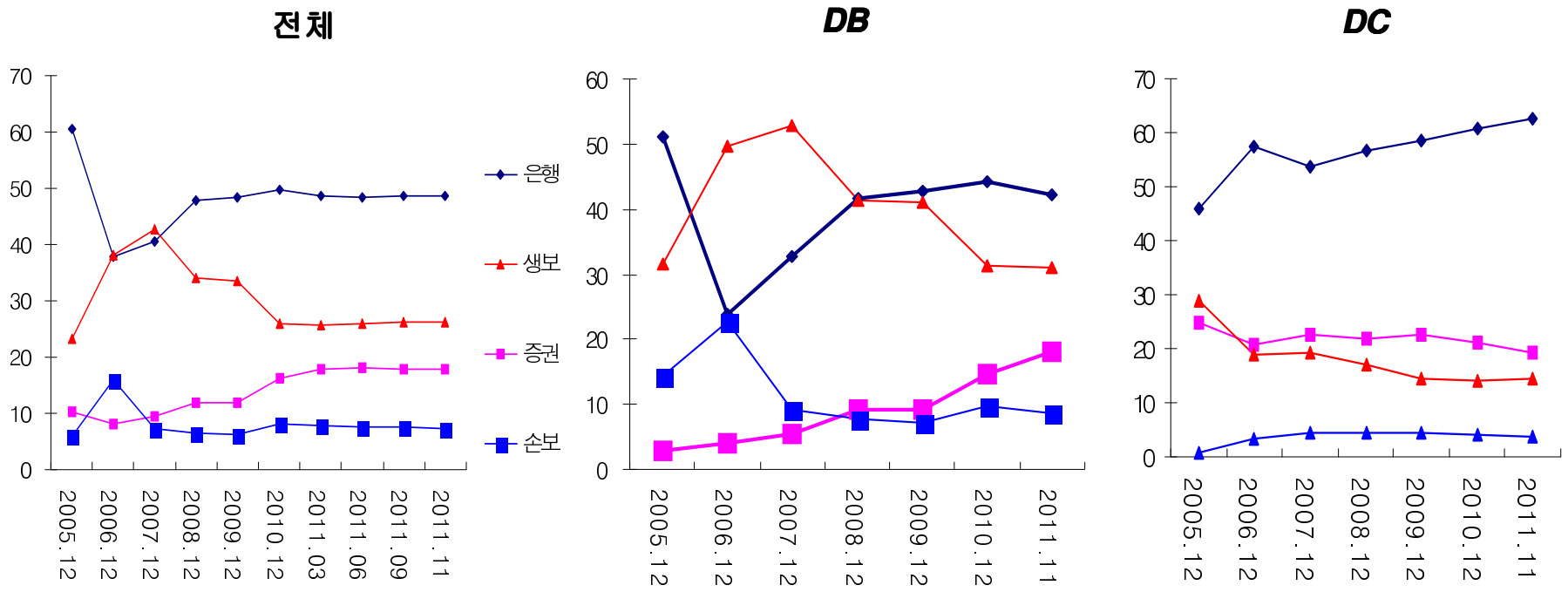
- **전체 사업장(1,507,158개소)의 8.7%인 130,755개소가 도입**
  - 5인 이상 사업장: 16.7% (총 543,792개소 중 90,552개소 도입)
  - 4인 이하 사업장: 4.2% (총 963,366개소 중 40,203개소 도입)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조 9,530억원**
  - 은행(19.9조, 48.7%), 생보(10.7조, 26.2%), 증권(7.3조, 17.8%), 손보(3.0조, 7.3%) 순
  - DB형의 비중이 72.5%인 29조 6,835억원
  - 원리금보장 상품이 92.3%(37.8조원)이며, 그 중 예금이 56.7%(21.4조원)
  - 1년 이하 상품 비중이 79.9%로 단기 상품 위주 운용

시장점유율

❖ **은행이 50% 가까운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 DC형 시장에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음
- 중소기업 시장에서 강함



주 : 운용관리계약 자산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국내 퇴직연금의 특징

- **퇴직금 제도와 병존**
  -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촉진: 재원 마련,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인식 등
  - 퇴직연금 제도 확산 지체: 세제혜택 등 차별성 부족, 일시금 선호, 중도인출 등

- **일시금을 확정,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 **DB형 중심의 퇴직연금**

-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자산운용**

- **은행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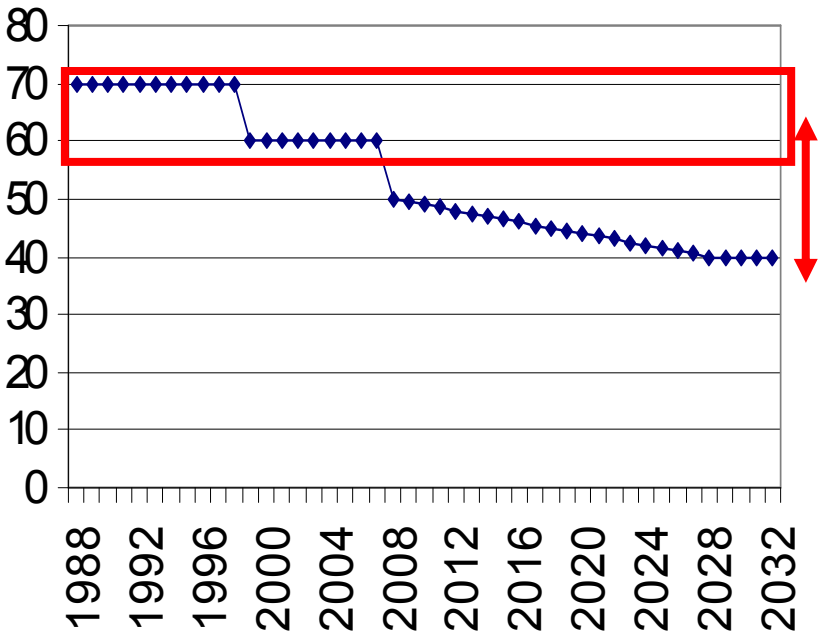
3. 퇴직소득 안정화를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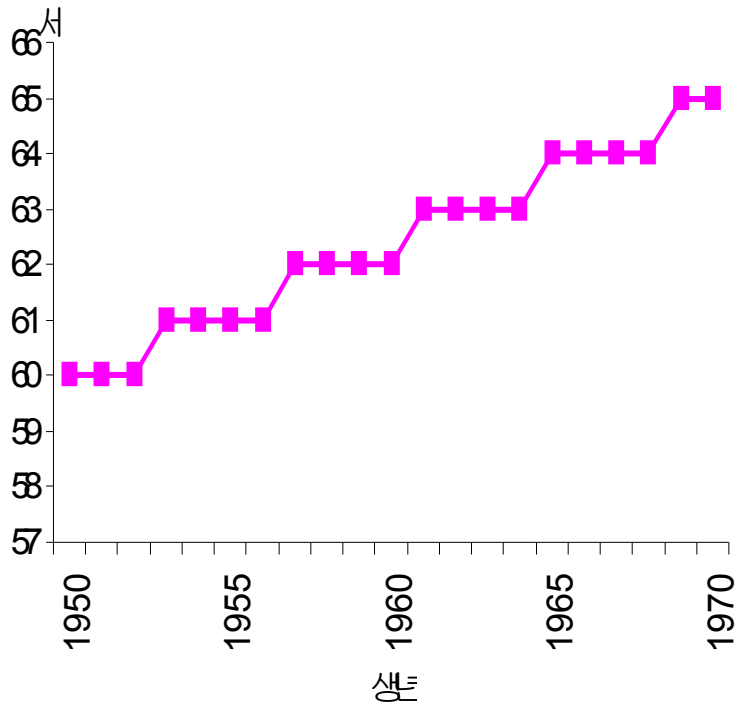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 **1998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 1998년: 소득대체율 70% → 60%, 연금수급개시연령 60세 → 65세
- 2007년: 소득대체율 60% → 50%(2008년) → 40%(2028년까지) (40년 가입)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 현 제도상 일시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대체율 산정은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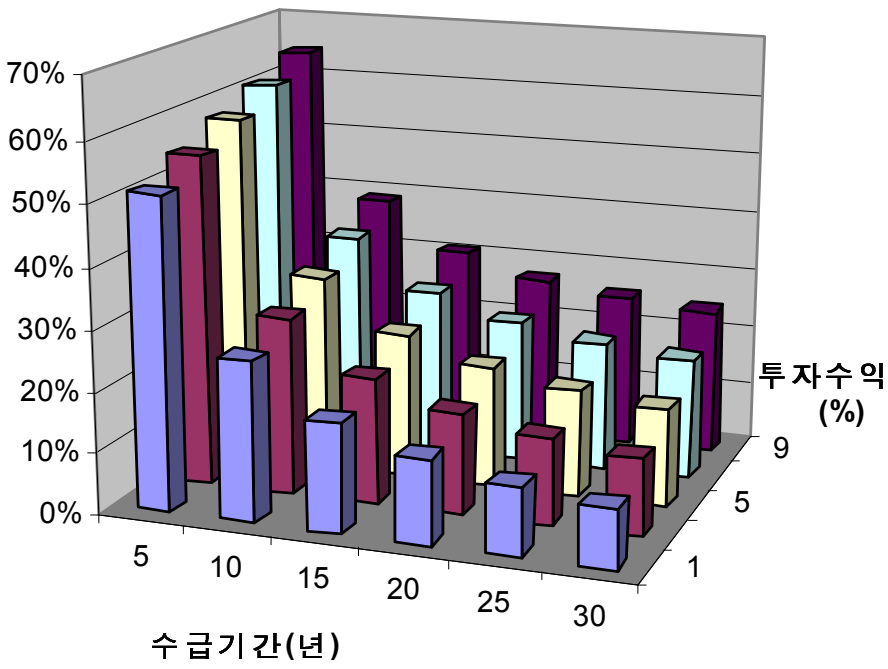
- **DB형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근로기간, 퇴직기간(수령기간),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짐**
  - 30년 근무한 근로자가 25년간 매월말 연금을 수령하고, 투자수익률이 5%인 경우 소득대체율은 17.5% (연금 지급기간이 30년인 경우 소득대체율은 16.1%)
    - 2009년 기준 5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25.1년, 여성의 기대여명은 30.6년

- **DC형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이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퇴직시 수령액이 증가하여 소득대체율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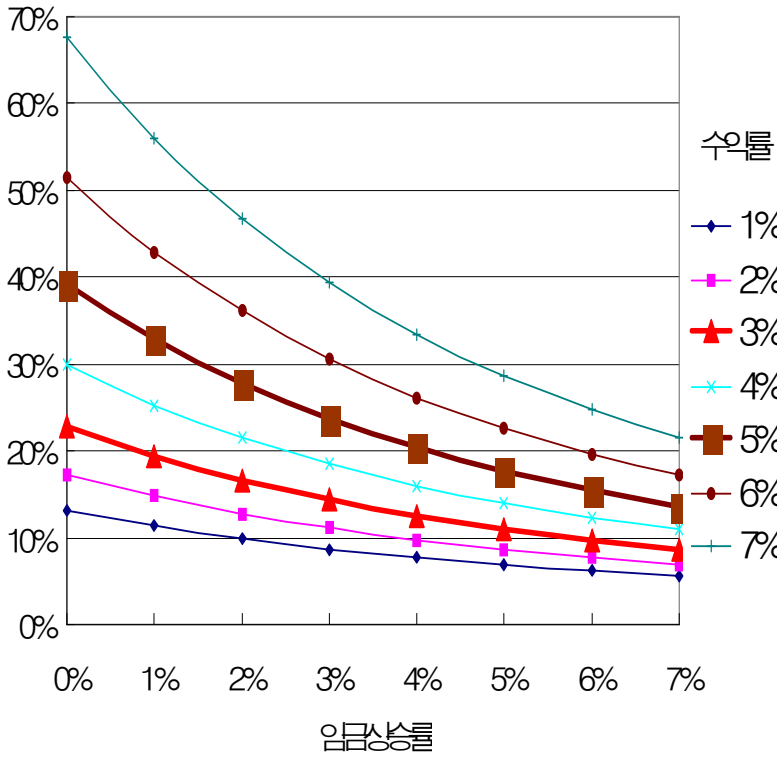
- 국민연금의 정상 퇴직연령과 현실적 퇴직연령과의 차이

- **3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1/12 납입액이 요구됨**
  - (9%)+ (8.3% + 400만원) → (?%) + (2개월 소득 … 17%)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예)



DB형



DC형

연금화 가능성

- 2011년 11월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4,604명의 퇴직자 중 일시금 수급자는 4,604명(96.4%), 연금 수급자는 170명(3.6%)

- 퇴직급여 금액이 연금으로 받기에는 너무 작음
  - 55세 이상 일시금 수급자의 1인당 퇴직급여 997만원

- 일시금 세제가 관대함

(단위: 명, 억원)

	일시금		연금		합계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55세 미만	48,445	2,169	선 택 불 가		48,445	2,169
55세 이상	4,604	459	170	2	4,774	461
합계	53,049	2,628	170	2	53,219	2,630

자료: 금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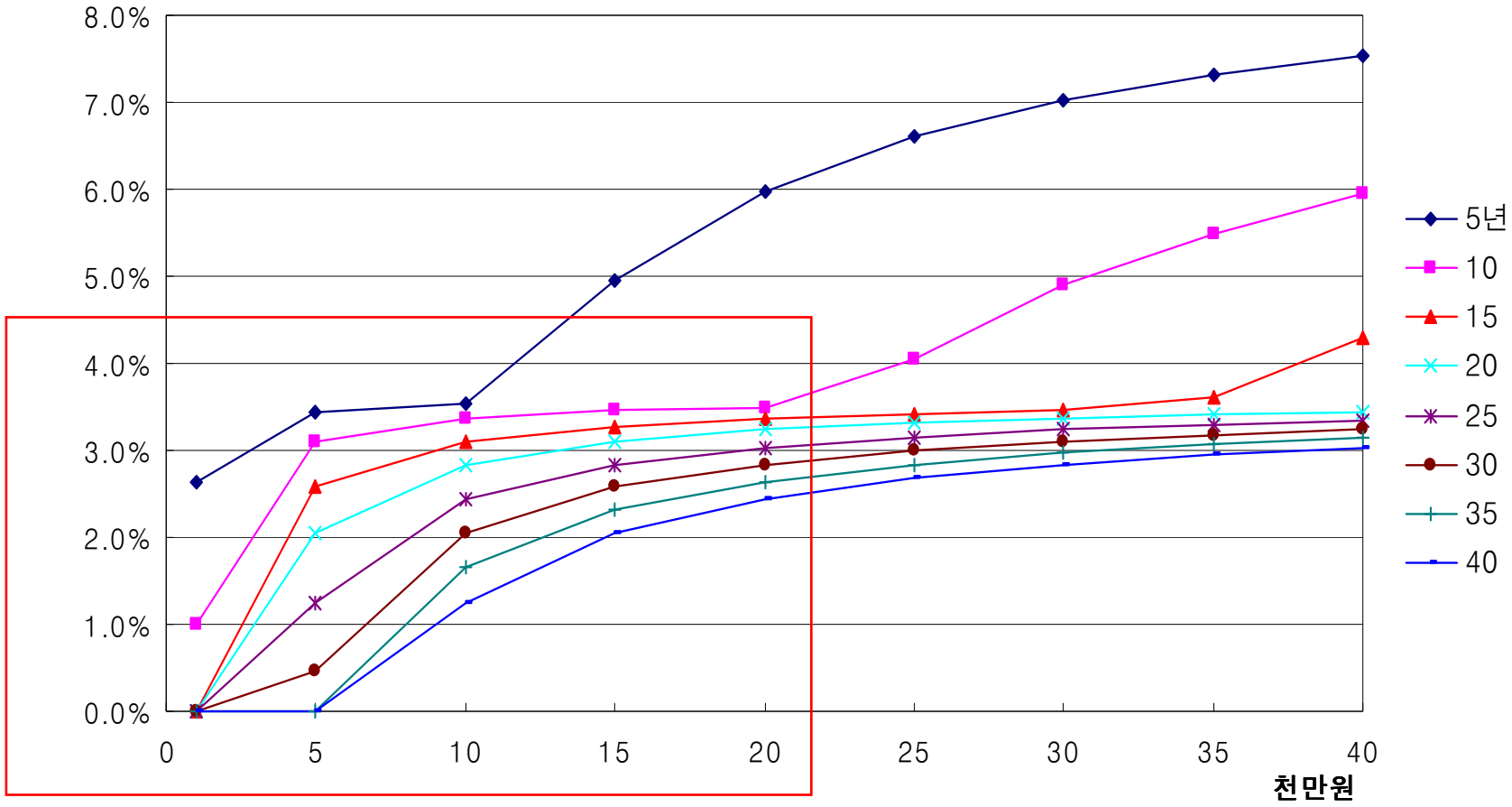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금

❖ **현행 퇴직연금 세제는 기존 퇴직금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측면이 강하여, 일시금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퇴직일시금에는 금액,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40%의 일괄공제 적용
- 근무연수에 비례한 퇴직소득 공제를 허용하여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일시금이 유리하게 됨
  -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연금소득공제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연금소득에 의해서만 결정
- 연분연승
  - 미국의 경우 10년 → 5년 →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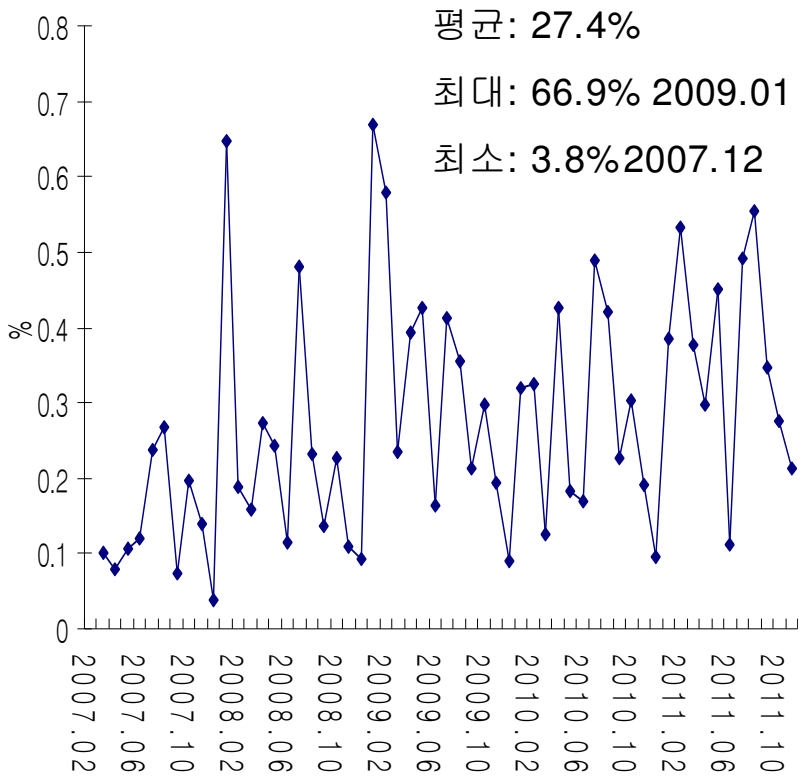
-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합산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퇴직연금이 아닌 다른 소득에 연동되지만, 퇴직일시금의 경우 다른 소득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됨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금(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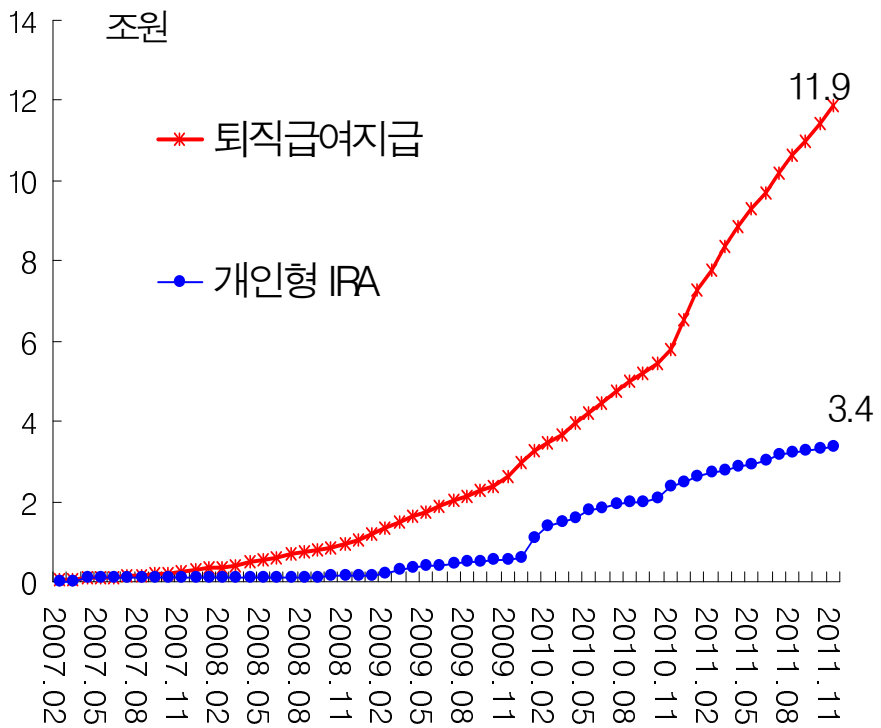


퇴직연금 자산의 중도 소진

퇴직급여 지급액/퇴직연금 유입액



누적 퇴직급여지급액과 IRA 적립금



자료: 금감원

주 : 퇴직급여 지급액/(퇴직연금 정기납입분 + 가입자 추가부담분 + 제도전환분 + 적립금 운용손익)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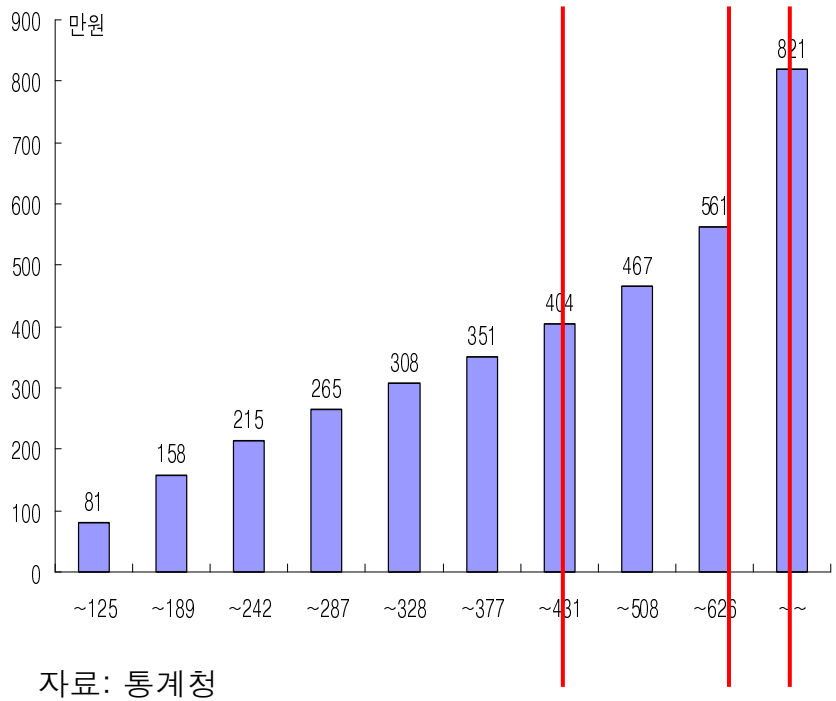
개인퇴직 저축/투자 플랜 개요 (1)

- "개인퇴직 저축/투자계정"을 신설

- 소득공제 한도 증액
  - 1개월 소득 (퇴직연금 미가입시 2개월)
  - 소득한도 설정 가능: 600만원; 800만원;
  - 연령별 추가 납입
  - 전년도 소득공제 한도액 미사용액 이월

- 중도 인출 엄격 제한 & 상환 (의무 부여)
  - 주택
  - 교육 (본인, 배우자, 자녀)
  -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비

10분위별 월평균소득과 경계값



자료: 통계청

주 : 가구별 월 소득 기준 (2010), 전체 평균: 363만원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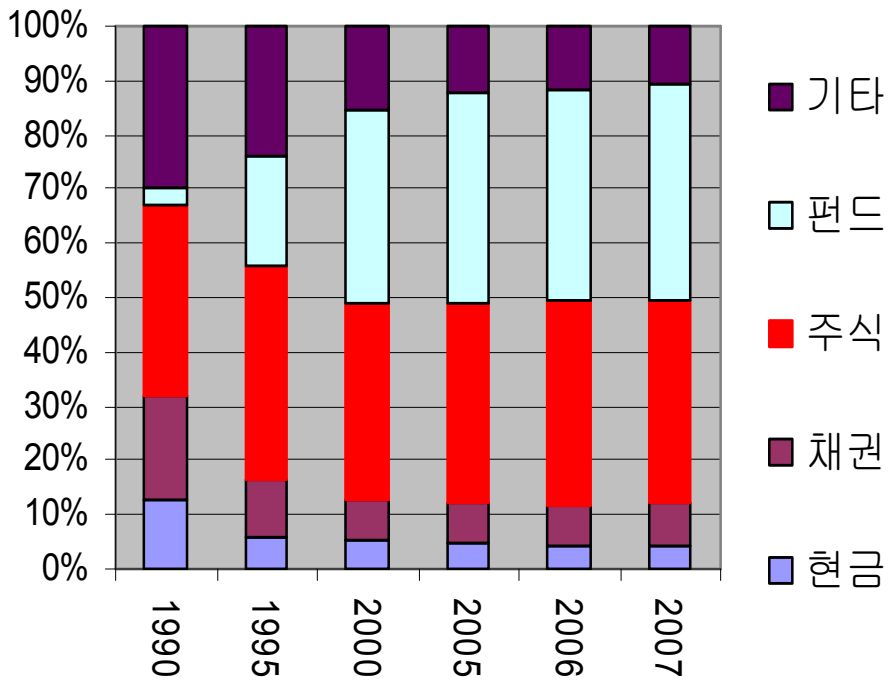
개인퇴직 저축/투자 플랜 개요 (2)

- ❖ **자산운용 제약 완화**

- ❖ **퇴직자산 분할 인출 의무화/장려**
  - 퇴직소득 세제 개선
  - 일정 비율 일시금 인출 허용
  - 종신연금을 구입하거나 소득인출 펀드 등으로 이전
    - 장수위험 관리

- ❖ **플랜 제공 금융기관 및 계좌 개설**
  - 주관리기관에 주계좌를 개설한 후, 여타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연결하여 다양한 상품 매입

미국 DC형 퇴직계좌 자산구성



자료: McGill 외(2010), p.694

고맙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